

Today's News Clip

#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1월 11일 목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목 차

강원도민일보	03면	도의회 25일 원주서 의원총회	1
강원도민일보	03면	국힘 김기홍·최재민 도의원 불출마	1
강원도민일보	03면	'도의원 의정활동비 50만원 인상' 찬반 토론 주민공청회 23...	2
江原日報	06면	"강원특별법 통해 건설업계 수주 환경 개선"	2
江原日報	21면	"응급환자 보호 체험교육 원활한 운영 적극 지원"	3
강원도민일보	22면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원주소방서 방문	3
연합뉴스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 원주서 의정 연찬회...지역 현안 청...	4
CBS	온라인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새해에도 숙원사업 해결에 최...	5
江原日報	01면	"청소년올림픽 문화프로그램 보러 오세요"	6
江原日報	01면	올림픽 페스티벌로 막 오른 '세계 청소년 대축제'	6
강원도민일보	16면	[동정] 김기철(정선·왼쪽) 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김영덕 ...	7
강원도민일보	18면	[동정] 함명준(위원쪽) 고성군수·김용복(고성·위오른쪽) 도...	7
강원도민일보	14면	[동정] 이상호(위원쪽) 태백시장·고재창(위오른쪽) 시의장·...	7
강원도민일보	18면	[동정] 강정호 (속초)도의원	7
강원도민일보	17면	[동정] 박대현 (화천)도의원	7
강원도민일보	02면	김 지사, 대기업들 찾아 세일즈 행정	8
강원도민일보	04면	도교육청·춘천시 '온의·삼천지구 초교' 대체부지 찾는다	8
강원도민일보	01면	고향기부금 53억원 마른 지방재정 단비	9
강원도민일보	04면	동서고속도로 추진협 예타통과 총력 공동대응 방안 모색	10
江原日報	01면	도내 '13만 가구' 수혜 도심 정비사업 불붙나	11
江原日報	04면	아이들이 사라졌다 ... 강원 초교 16곳 신입생 '0명'	12
강원도민일보	04면	어촌계 한철장사에 외국인 장기계약 부담...불법취업 속출	13
강원도민일보	10면	국회 발육인 기업혁신파크 애타는 춘천시	13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한류 관광 치밀한 법적 검토 필요	14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참신한 정책으로 모금액 끌어올려야	15
江原日報	19면	[사설] 반복되는 혈액 부족 사태, 헌혈 늘릴 제도 마련을	16
江原日報	19면	[사설] 일상 속 AI 시대 ... 강원도 경제 체질을 바꿔야	17

## 강원도민일보

도의회 25일 원주서 의원총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는 25일 원주 인터블고 호텔에서 2024년도 의원총회를 열고 올해 의정활동을 공유한다. 강원도의회(의장 권혁열)는 이날 오후 2시 도의원 48명, 사무처 직원 40

2024 01 11 ( )

03

여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다.

의원총회에선 지난해 의정결산 및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계획을 공유하고, 주요안건을 상정해 토론한다. 도의회는 청렴도 실천 결의대회도 가질 예정이다. 이설화 lofi@kado.net

## 강원도민일보

국힘 김기홍·최재민 도의원 불출마

제22대 총선 공직자 사직 기한(11일)을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김기홍·최재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 나란히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기홍·최재민 도의원은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원주을 선거구 출마를 준비했었다. 김 의원은 10일 본지통화에서 "(해당 선거구에) 중량감 있는 후보가 있다"

2024 01 11 ( )

03

며 "(도의원 사직에 따른) 보궐선거를 만드는 게 주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도 "일단 도의원에 충실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0일 현재 원주을 선거구에는 국민의힘 소속 권이중 변호사와 안재운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위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또, 지난 8일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원주을 선거구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설화

# 강원도민일보

2024 01 11 ( )

03

‘도의원 의정활동비 50만원 인상’

찬반 토론 주민공청회 23일 개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50만원 인상에 대한 찬반 토론 주민공청회가 오는 23일 열린다.

강원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강원디자인진흥원 3층 디자인홀에서 강원도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도의회 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 4일 1차 회의에서 잠정 결정된 의정활동비 월 200만원을 두고 찬반 토론이 진행된다. 이설화

2024 01 11 ( )

# 江原日報

06

## “강원특별법 통해 건설업계 수주 환경 개선”

도, 3차 개정안에 건설산업 활성화 특례 반영 약속  
김진태 지사 대한건설협 도회 신년인사회에서 밝히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특례 반영을 추진한다. 특례 반영이 현실화될 시 도내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사업은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김진태 도지사는 지난 5일 춘천 스키컨벤션에서 열린 ‘대한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 신년인사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세 번째 개정안에는 도내에서 국가기관이 건설사업을 할 때 지방계약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넣으려 준비하고 있다”며 “새로 국회를 구성하는 분들도 전폭적으로 힘을 보태 달라”고 밝혔다.

그동안 이어진 강원자치도내 건설업계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특례 제정 요구에 김 지사가 직접 법안 반영을 약속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건설업계는 강원특별법 2차 개정 시기부터 도와 도의회에 건의문을 전달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계약에 관한 특례’를

제정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건의문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국가계약법 제 25조 규정에 의해 고시금액(81억원) 미만이고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해서만 지역의 무공통도급을 적용할 수 있다.

반면 지방계약법은 모든 공사에 40% 이상 지역의 무공통도급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업계는 대형 국책 건설공사에도 도내 중소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에 따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동계약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 반영을 요청했다.

업계 요청을 받아들여 강원자치도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관련 특례를 반영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SOC 예산 축소 기조와 건설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침체된 지역 건설 경기와 지역 내 발주공사에



대한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 2024년 신년인사회가 지난 5일 춘천 스키컨벤션웨딩홀에서 최상순 도회장, 신경훈 교육감, 한기호·노용호 국회의원, 육동한 춘천시장, 박기영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내빈과 건설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한 강원자치도내 건설업계의 높은 수주 의존도를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신설되는 특례는 도지사에게 지역 건설산업진흥 발전계획의 수립·시행 의무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

기관운영에 따라 발주되는 공공기관 사업에 대해 ‘지방계약법’을 적용토록 해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최상순 대한건설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장은 “도가 강원특별법 3

차 개정에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특례 반영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법안 개정을 계기로 지역 건설업체들의 수주 환경이 보다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이기자 haha@kwnews.co.kr

# “응급환자 보호 체험교육 원활한 운영 적극 지원”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의정 연찬회 개최  
원주시청·소방서 방문 현안사항 의견교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가 지난 9, 10일 이틀간 원주시청과 원주소방서를 찾아 의정 연찬회를 실시했다.

이번 연찬회는 올해 안전건설위원회 운영 방향을 모색하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교환을 위해 마련됐다.

안전건설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은 10일 원주소방서(서장:이강우)를 찾아 구급·화재 진화 활동 등으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업무보고 등을 받았다. 원주소방서가 도민들의 체험교육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응급처치체험장,

지진안전체험장, 화재안전체험장, 생활안전체험장, 피난안전체험장 등 119안전체험마을도 점검했다. 도의원들은 특히 이상기후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자연재난에 대한 대처와 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의 보호를 위한 체험교육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의원들은 9일 원주시청을 방문, 원주지역의 주요 현안사업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도의회와 원주시 간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간담회에서는 원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원주소방서 직원격려 및 현지시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박기영)는 9, 10일 이틀간 원주시청, 원주소방서를 찾아 의정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 연찬회를 실시했다.

초정밀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원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국지도88호선 원주 지정~흥업 도로건설공사의 4차선 변경 등을 논의했다. 박기영 도의회 안전건설

위원장은 “2024년 안전건설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연찬회를 추진했다”며 “조례안심사, 결산승인, 예산심사 등 상임위 본연의 업무뿐만 아니라 국도5호선 춘천~홍천

확장, 춘천 서면~신북 우회도로 건설 등 지역 숙원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

## 강원도민일보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원주소방서 방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기영)가 10일 원주소방서에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응급환자 보호를 위한 도민 교육 활성화 등을 주문했다.

사진제공-도의회

##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 원주서 의정 연찬회... 지역 현안 청취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 원주소방서 방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는 9~10일 원주에서 의정 연찬회를 열고 올해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연찬회에 이어 원주시청을 찾아 초정밀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원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국지도 88호선 원주 지정~흥업 도로 건설공사 4차선 변경 등 주요 현안 사업을 논의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원주소방서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소방서에서 운영 중인 119안전체험마을을 살폈다.

위원들은 이상기후로 인해 증가하는 자연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주문하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 체험교육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박기영 위원장은 "조례안 심사, 결산 승인, 예산심사 등 본연의 업무뿐만 아니라 지역 속원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정책 지원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2024 01 10 ( )

CBS

##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새해에도 속원사업 해결에 최선"

강원CBS 박정민 기자  
핵심요약

9~10일 원주에서 '의정활동 역량강화' 의정연찬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0일 원주소방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강원도의회 제9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기영 의원)는 원주 일원에서 9일과 10일 의정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의정 연찬회를 실시했다.

9일 원주시청에서는 주요 현안 사업 및 건의사항을 듣고 도의회와 원주시 간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원주 조정밀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원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국지도 88호선 원주 지정~흥업 도로건설공사 4차선 변경 등을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

10일 방문한 원주소방서에서는 구급 및 화재 진화 활동에 수고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응급환자 보호를 위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교육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박기영 위원장은 "올해도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는 조례안 심사, 결산승인, 예산심사 등 상임위 본연의 업무뿐만 아니라 지역 속원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CBS 박정민 기자

2024 01 11 ( )

# 江原日報

01



“청소년올림픽 문화프로그램 보러 오세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 기원 전시프로그램 개막식이 10일 평창 대관령면사무소에서 정광열 강원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최종수 도의회 동계특위 부위원장, 황성현 평창부군수, 김별아 강원문화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전시작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평창=권태명기자

2024 01 11 ( )

# 江原日報

01

## 올림픽 페스티벌로 막 오른 ‘세계 청소년 대축제’



### 강원 2024 ‘G-8’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하 청소년올림픽)을 문화와 예술로 풍성하게 할 ‘올림픽 페스티벌’이 화려한 막을 올렸다. ▶관련기사 2·23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강원문화재단이 주관한 청소년올림픽 전시 프로그램, ‘지구를 구하는 멋진 이야기들’ 개막식이 10일 평창 대관령면사무소에서 열렸다. 강릉 경포해변과 평창 대관령트레이닝센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5개국 26팀의 작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구를 지키는 공생의 강원’, ‘미래로 가는 디지털 강원’을 주

### 동계청소년올림픽 전시프로그램 개막... 평창·강릉서 펼쳐져 ‘지구를 지키는 공생의 강원·미래로 가는 디지털 강원’ 선보여

제로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담론을 다루는 한편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첨단기술과 접목시켜 디지털 예술로의 확장도 모색한다.

정광열 도 경제부지사는 “올림픽은 고대 그리스 축제에서 시작했다. 축제에서는 먹는 것과 운동 그리고 문화가 빠질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전시는 올림픽의 정신과 가장 잘 맞닿아 있다”며 “죽서루, 조선왕조실록 등 도내 문화재를 작품으로 만나며 관람객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프로그램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별아 강원문화재단 이사장은 “스토리는 결국 삶에서 지루한 것을 뺀 모든 것”이라며 “삶과 일상에서 지루한 것을 제거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평창과 강릉에서 펼쳐진다. 이번 전시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볼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최종수 도의회 청소년올림픽 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위기 문제를 예술문화로서 멋지게 풀어갈 수 있어 자랑스럽다”며 “전시를 통해 세계가 하나

되는 올림픽 정신은 물론 기후위기에 대한 도민의 큰 관심과 열망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월정사성보박물관에서는 ‘오대산 월정사: 절, 산속에 피어난 이야기’를 타이틀로 한 청소년올림픽 특별전이 개막했다.

오는 19일 청소년올림픽 개막식을 시작으로 각종 공연과 전시가 이어진다. 스포츠·문화 체험 ‘페스티벌 사이트’와 아르브뤼코리아 사회적협동조합이 발달장애작가들과 함께 꾸미는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전시, 청소년오케스트라 공연 등 크고 작은 프로그램이 쉴 새 없이 펼쳐질 예정이다. 평창=김민희·조상원기자

# 강원도민일보

2024 01 11 ( )

16

영희 신년인사회에 참석한다.



김기철(정선·왼쪽) 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김영덕 정선군의원은 11일 오전 11시 북평면 종합복지회관에서 열리는 북평면 번

# 강원도민일보

2024 01 11 ( )

18



함명준(위 왼쪽) 고성군수·김용복(고성·위 오른쪽)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이지영(비례) 도의원은 11일 오전 11시 30분 현내면 금강산콘도에서 열리는 고성군신년인사회에 참석한다.

# 강원도민일보

2024 01 11 ( )

14



이상호(위 왼쪽) 태백시장·고재창(위 오른쪽) 시의장·문관현(태백) 도의원은 11일 오후 6시 오투리조트에서 열리는 강원지구청년회의소 이·취임식에 참석한다.

# 강원도민일보

2024 01 11 ( )

18



강정호(속초) 도의원은 11일 오후 6시 속초마레몬스호텔에서 열리는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원 AMP 설악총동문회 신년하례식 및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한다.

# 강원도민일보

2024 01 11 ( )

17



박대현(화천) 도의원은 11일 오후 6시 태백시오투리조트에서 열리는 JCI 강원지구청년회의소 제55대 지구회장·회장단 및 감사 이·취임식에 참석한다.

## 강원도민일보

### 김 지사, 대기업들 찾아 세일즈 행정

삼성·현대차·LG 전시관 방문  
기업 대표들과 교류 현안 모색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막을 올린 'CES 2024'에 참석한 김진태 도지사가 글로벌기업과의 접촉을 확대하며 현장 세일즈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지사는 CES 2024 개막 첫 날인 9일(현지시간), 삼성과 현대차, LG 등

각 전시관을 찾아 각 기업 대표들과 교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전시관을 찾은 가운데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이 도대표단을 직접 맞았다. 특히, 삼성전자는 2층 전시관에 별도 마련된 VIP룸을 김 지사 등 도대표단에게 개방하는 등 특별하게 신경을 썼다. 또, 박 사장은 김 지사가 삼성전자의 혁신기술을 체험하는 내내 추가적인 설명을 보태며 이해를 돕기도 했다.

김 지사와 박 사장의 이날 만남은 지난해 10월 말, 도청에서 개최된 도와 삼성전자 간 반도체 인재양성 첫 협약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도는 CES 2024 전시관 방문 일정을 짜며 삼성전자를 단연 1순위로 꼽았다. 이는 김 지사의 공약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원주 유치 등 강원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지를 삼성

2024 01 11 ( )

02

이 진출한 글로벌 무대에서도 각인시키기 위한 차원과도 맞닿아 있다.

도대표단의 2번째 방문 기업 전시관 역시 삼성이었다. 삼성 SDS 전시관으로, 해당 일정은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 대표가 지원해 전격 성사됐고 현장에선 김태하 경제협력관이 지원했다. 삼성 SDS 전시관에선 황성우 대표이사 사장과 이정현 부사장 등이 김 지사 일행을 맞았다.

도대표단은 이날 오후 첫 일정으로는 현대자동차 전시관을 찾았으며 김동욱 부사장 등이 김 지사를 맞았다.

김 지사는 개인 모빌리티인 DICE (Digital Curated Experience)를 체험한 뒤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때 DICE 설치를 현대차 측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2024 올림픽 대신 2026년 강릉에서 열리는 ITS(지능형 교통체계) 세계총회가 괜찮지 않겠느냐"고 답변했다.

라스베이거스/박지은

## 강원도민일보

2024 01 11 ( )

04

### 도교육청·춘천시 '온의·삼천지구 초교' 대체부지 찾는다

속보=춘천시와 교육당국이 춘천시 온의동 산 43-3 일대에 추진 중인 온의·삼천지구 초교 설립 추진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불승인(본지 2023년 12월 28일자 9면 등)되자 양 기관 수장이 대체 부지 찾기에 나섰다.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과 육동한 춘천시장은 10일 교육감 집무실에서 만나 온의·삼천지구 초교 신설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신경호 교육감은 "온의·삼천지구 초교와 관련 춘천시에서 먼저 정해준 곳은 (위원회 승인이) 안 됐다. 주변 사유지에 대해 시장님이 투지 수용 계획을 내려주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이에 육동한 시장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온의삼천지구가 확장될 미래까지 감안, 부지를

찾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온의동 산 43-3 일대에 대해 △부지정지공사에 143억원이라는 공사비 발생 예측 △일조기준 불만족 등을 근거로 '불승인'을 내렸다.

도교육청과 춘천교육지원청, 춘천시는 이번 달 중으로 TF팀을 구성해 대체 부지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정민업

2024 01 11 ( )

강원도민일보

01

# 고향기부금 53억원

## 마른 지방재정 단비

속초 4억4230만원 도내 최고  
한도 상향·홍보 방안 확대 등  
현행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강원특별자치도청과 도내 18개 시·군이 시행 첫 해인 지난 1년 동안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52억9403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소멸 위기 지역의 재정 확충을 목표로 지난해 도입됐다. 각 지자체는 세수악화에 따른 대안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기부한도 상향조정과 같은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0일 본지 취재 결과, 강원도 분청과 도내 18개 시·군은 지난해 연간 고향사랑기부금 52억 9403만 5700원을 모금했다. 시군별로 보면 속초시가 4억 423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릉시 4억 1251만원 △평창군 4억 588만원 △춘천시 3억 9060만원 △횡성군 3억 7389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도내 지자체는 지난해 모금된 고향사랑기부제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기부액을 다년간 적립할 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기금은 청소년 보호육성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에 쓸 예정”이라

### 2023 시·군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작년말 기준, 단위/천원, 백만원올림, 자료/행정안전부

- 합 계 ..... 5,294,035
- 강원도 분청 ..... 330,061

춘천시	390,608	영월군	270,356
원주시	305,576	평창군	405,887
강릉시	412,516	정선군	192,628
동해시	269,143	철원군	358,103
태백시	194,761	화천군	155,298
속초시	442,310	양구군	126,461
삼척시	275,710	인제군	198,567
홍천군	262,805	고성군	231,914
횡성군	373,895	양양군	97,473

고했다. 양양군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치아교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의 재정 확충을 목표로 지난해 1월 시행됐다. 개인은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하고 일부 세액 공제와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는다.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다만 세수 핑크 현상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고향사랑기부제의 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 재정 확충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기부한도 상향과 홍보 방안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자체 별 모금액 격차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는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는 개인을 대상으로 기부 독려 활동에 나설 수 없다. 개인별 기부금도 연간 500만원 한도로 제한됐다. 양양군 관계자는 “출향도민을 대상으로 기부 독려 활동을 할 수 없어 제도 운용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과일과 산나물 등 특산품을 주기적으로 답례품 목록에 추가해 기부 참여를 이끌 예정”이라고 했다. 김덕형



평택~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회장 심규언)는 10일 동해 꿈빛마루도서관에서 동해·삼척·태백시·제천시와 영월·정선·단양군 등 7개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제9차 정기회를 열어 예비타당성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 동서고속도로 추진협 예타통과 총력 공동대응 방안 모색

공동분담금 1억3300만원 반환 결정  
10대 회장 제천·11대 삼척시장 선출

동해·삼척·태백·제천시와 영월·정선·단양군 등 7개 시·군으로 구성된 평택~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회장 심규언 동해시장)는 10일 동해 꿈빛마루도서관에서 '제9차 정기회'를 열고 3월로 예정된 예비타당성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동서고속도로 제천~영월 구간을 2025년 착공해 오는 2032년 개통

을 목표로 진행중인 가운데, 지난해 5월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영월~삼척 구간에 대해 오는 3월 통과 여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지역 국회의원과 도, 7개 시·군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중인 영월~삼척 구간에 대해 경제성보다 지역 균형발전의 논리로 정부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서고속도로 추진과 관련, 협의회는 지난해 8월 이철규국회의원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방문해 예타 통과를 건의하는 등 조기 개통을 위해 공동대응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어 제10대 회장으로 김창규 제천시장을 확정하고, 제11대(2025년) 회장에는 박상수 삼척시장을 선출했다. 또 2023년 공동분담금 1억4000만원 중 집행되지 않은 1억3300만원을 각 회원 시·군에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불합리한 경제성 평가에 발목이 잡혀 제천에서 영월~동해~삼척 구간이 오랫동안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며 "균형발전과 강원 남부권의 지방 소멸 대응, 산업과 관광 측면을 강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이끌어내자"고 말했다. 전인수

2024 01 11 ( )

江原日報

01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 도내 '13만 가구' 수혜 도심 정비사업 불붙나

## 주택공급·건설경기 보완책

사업 기간 최대 5~6년 단축  
尹 “다주택자 증과세도 철폐”

신축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5~6년 단축되며, 향후 4년(2024~2027년)간 전국에서 총 95만가구의 재건축·재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특별자치도 내에도 30년 넘은 주택이 13만여 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빠른 주택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진입 문턱을 낮춘다. 우선 준공 30년을 넘긴 주택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에 바로 착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향후 4년간 전국에서 총 95만가구가 정비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하는 가운데 2027년 기준 도내 준공 30년 이상 넘게 되는 주택은 13만여 가구다.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2027년까지 준공 30년을 경과하는 도내 주택은 1,073개 단지 13만6,218가구다. 춘천이 129개 단지 2만4,820가구, 원주 141개 단지 3만4,439가구, 강릉 170개 단지 2만1,800가구, 동해 76개 단지 1만1,248가구, 속초 71개 단지 1만3,204가구 등의 재건축·재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주택 건설사업자 원시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대상은 올해 1~12월에 준공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으로 올해 12월까지 임대계약(2년 이상)을 체결한 주택이다. 지난해 10월 원주 1,849가구를 비롯한 총 3,861가구가 집계된 도내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건축 착공뿐 아니라 다주택자 증과세 철폐도 약속했다. 이규호·이무현기자

2024 01 11 ( )

江原日報

# 아이들이 사라졌다... 강원 초교 16곳 신입생 '0명'

04

저출생 직격탄... 정선 4곳 최다  
예비소집 1명 학교는 20곳 달해  
학령인구 감소 폐교 결정 3곳도

저출생 영향으로 올해 강원지역 16개 초등학교의 신입생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본보 취재 결과, 2024학년도 초교 입학율 앞두고 취학대상자가 없어 예비소집 안내문을 발송하지 못한 도내 초등학교는 모두 16개 학교(예비소집일 기준)로 정선에만 4곳에 달했다.

학교별로는 속초양양 상평초공수전분교장·상평초현서분교장·현서초·인구초, 태백 삼성초·동점초, 홍천 모곡초·화계초대룡분교장, 횡성 안흥초덕천분교장, 영월 구래초, 정선 정선초가수분교장·백전초·남산초남창분교장·남평초, 철원 김화초, 고성 대진초명파분교장 등이다.

다만 입학식이 열리는 3월 전 전입 등을 통해 이들 학교로 진학을 원하는 학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입학생 수는 달라질 수 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예비소집 대상 아동이 1명에 불과한 학교는 춘천 광관초·지촌초·지촌초지암분교장·추곡초, 원주 비두초, 속초양양 상평초오색분교장, 삼척 장

호초·하장초·오저초, 홍천 두촌초, 횡성 청일초·유현초, 평창 주진초, 정선 예미초운치분교장, 철원 묘장초, 화천 유촌초오음분교장·다목초·원천초, 양구 해안초, 인제 기린초진동분교장 등 20곳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도내 20개 학교에서는 신입생이 한 명도 없어 3월 입학식을 치르지 못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를 결정하는 학교도 꾸준히 생기고 있다. 올해 폐지가 예정된 분교장은 화천초 논미분교장, 원통초 신덕분교장, 광산초 흘리분교장 등 3곳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크게 늘어나면서 학교 통합 및 유지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분교를 포함한 공립 소규모학교 361곳 중 통폐합 중점 기준(분교 10명 이하, 분교장 5명 이하)을 충족하는 학교는 분교 9곳, 분교 10곳 등 총 19곳으로 나타났다. 또 통폐합 권장 기준(분교 11~30명, 분교장 6명 이상) 학교는 분교 64곳, 분교 7곳 등 71곳에 달한다.

올해 신입생이 없는 도내 한 학교 관계자는 “학교 운영을 위한 예산은 충분한 상황인데 정작 학생 유치에 대해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강동휘기자 yulnyo@

# 강원도민일보

2024 01 11 ( )

## 어촌계 한철장사에 외국인 장기계약 부담... 불법취업 속출

04

현행 고용허가제 사각지대  
근무지 이탈 불법체류 골머리  
미허가 업체 단기노동자 알선

재한 결과 이 지역 단기 외국인노동자 추산인구 200여명 중 상당수가 불법체류자(미등록외국인)로 파악됐다. 이들 대부분은 정식허가 받지 않은 취업알선업자를 통해 일을 구하고 있다.

지역의 한 어업인은 "단체 소속 어선 17척 중 고정 외국인 인력을 쓰는 곳은 1척 뿐"이라며 "알선 업체를 통해 단기 외국인노동자를 소개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신원 확인이 어려워 급여도 현금으로만 지급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비속련비자(E9)는 4년 10개월, 선원

비자(E-10)의 경우 3년을 계약하지만 어업 특성상 1년 중 핵심 조업기간은 3달 정도다. 때문에 정해진 조업기간 수확량에 따라 인건비 등을 책정하는 '보합제' 방식으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곳이 많다. 근로기준법과는 다르지만 정부도 인정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전용철 강릉시연안통발협회장은 "계약기간이 정해져있으니 4~5개월 정도 바쁜 시기가 지나면 고정 수입이 없어도 나머지 7~8개월은 외국인노동자 숙식비만 내게 된다"며 "월세 방값과 식사비, 보험비 등 인건비 외에도 1명

당 80만 원 이상을 선주들이 부담한다"고 했다.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올 경우에도 어업 관련 이해가 부족하다보니, 고용주들이 난감한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전용철 회장은 "인력 신청을 해서 거주지까지 마련했는데 이틀만에 배멀미가 난다며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 이들을 데려오기 위해 들었던 경비는 누가 보상해주느냐"고 호소했다.

또 외국인노동자들이 계약기간 내다 른 일자리를 원하는 경우 불법 취업 알

선을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도내에서 외국인노동자 취업알선을 해온 A씨는 "농수산물은 특정 수확기간이 명확한만큼 그 시기에 필요한 인력을 찾고, 임금지급기준과 계약방식도 모두 다르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인력을 제공하는 일"이라고 했다.

탁운순 강원이주여성상담소장은 "현행 외국인 고용 시스템은 고용주가 계약한 기간 안에는 다른 사업장에서 일할 수 없어 직업 선택권이 없다"며 "업장을 도망쳐 불법체류자가 되면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강주영

속보=강원 어촌계가 외국인노동자마저 구인난을 겪는 가운데(본지 1월 9일자 5면) 어업 현실과 맞지 않는 현행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사각지대 속에 근무지 이탈과 불법취업알선 등이 심화되고 있다.

10일 본지가 강릉 주문진 일대를 취

# 강원도민일보

2024 01 11 ( )

## 국회 발뚎인 기업혁신파크 에타는 춘천시

10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상정 보류  
법안 통과 후 공모 선정지 발표  
총선 후 안전 논의 가능성 제기  
육시장 "해당 현안 조속 진행"

사법위원회 심의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기업혁신파크의 최소면적을 100만㎡에서 50만㎡로 완화하고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 허용 등이 담겼다. 특별법이 통과돼야 기업혁신파크 선정 도시를 발표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기업혁신파크는 춘천시뿐만 아니라 전국 7개 지역이 도전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난해 말 해당 법안이 통과와 선정 도시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됐지만 법안 상정조차 거둬 이뤄지지 못하면서 춘천시도 당황한 기색

이 역력하다. 더욱이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가 총선 이후에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시청 내부에서는 울하반기나 돼야 기업혁신파크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업혁신파크는 민선7기 때부터 춘천시가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이다. 더존비즈온, 신한은행과 함께 남산면 광관리 일원 368㎡ 부지에 9300억원을 투입, 정밀의료·바이오·IT·데이터 산업 집적도시를 만드는 게 골자다. 주거지역도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바이오와 IT·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고 인구를 유입하겠다는

게 춘천시의 구상이다. 육동한 춘천 시장이 전면에 내세운 첨단 지식도시와도 맞닿아 있다.

진행이 지지부진하자 결국 육동한 시장이 나섰다. 육 시장은 최근 정부·국회 관계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 기업혁신파크의 조속한 진행을 요청했다.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육동한 시장은 "시간을 끌면 끝수록 더 복잡해진다"며 "21대 국회에서 기업혁신파크 현안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오세현 tpgus@kado.net

기업혁신파크의 마지막 관문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기업혁신파크 구성에 사활을 건 춘천시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0일 본지 취재 결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은 지난 8일 열린 국회 법제

## 강원도민일보

2024 01 11 ( )

/ 19

## 한류 관광 치밀한 법적 검토 필요

-삼척BTS조형물 철거... 사전 자문 거쳐야

한류관광일번지인 춘천 남이섬을 비롯해 강원도내에는 K-드라마와 K-팝 명소가 곳곳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영화 촬영지 등 한류 명소는 국내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 여행객들의 발길이 연중 이어집니다. 특히 BTS 앨범 재킷과 화보 촬영지는 전 세계 팬들의 방문지로 손꼽힙니다. K-컬처에 힘입어 이들 지역은 관광지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법률적인 검토를 소홀히 해 한류 상징물 활용이 무산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한류 관광지를 활용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삼척시의 방탄소년단(BTS) 관련 조형물 철거는 사전 법적 검토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시는 BTS 앨범 재킷 사진 촬영지로 유명한 맹방해변내 BTS 관련 조형물을 모두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BTS 소속사 측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무단 사용 중지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소속사는 특히 'Butter' 앨범 재킷 촬영에 사용된 파라솔과 선베드, 비치발리볼대 등 비주얼적 요소는 모두 당사의 성과라며, BTS 그룹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앨범 콘셉트 포토 이미지를

이용해 관광객을 유도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소속사 측과 사용 협의가 불발된 삼척시는 결국 맹방해변내 BTS 관련 조형물을 모두 철거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달 중 시청 홈페이지와 관광 책자, 안내판 등에 게재된 BTS 촬영지 등 문구를 모두 삭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시관계자는 공적인 영역에서 BTS 연관 관광 자원화를 추진하고, 팬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해 줄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소속사와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철거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록 맹방해변에서 BTS 관련 조형물이 사라지긴 했지만, 한류 관광지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삼척뿐만 아니라 도내 여러 곳에 있는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 지자체들은 K-컬처 활용 이전에 변호사에 심층적인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도 참고해야 합니다. 때론 기존의 촬영 장소나 구조물을 그대로 두고 편의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팬과 관광객들은 새로 만든 조형물이나 시설보다, 원형이 그대로 남아 있는 한류 명소를 더욱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강원도민일보

2024 01 11 ( )

/ 19

## 참신한 정책으로 모금액 끌어올려야

-고향사랑기부제 안착, 상위권에 강원 없어야 아쉬움 크다

고향사랑기부제 첫해인 작년 1년간 모금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기부 건수는 52만여 건에 달하고 모금액은 약 650억원인 것으로 집계돼 제도가 안착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43억원을 모금해 타시도보다 월등히 높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와 3위는 경북과 전북으로 각각 89억원과 84억원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강원은 외지 관광객 방문이 많아 기부자로 유치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상위권 실적에서 찾을 수 없어 아쉬움이 큼니다.

전국적으로 기금 상위권에 있는 기초지자체로는 전남 담양군이 22억으로 탁월하게 높았고 이어 전남 고흥과 나주가 각각 12억, 10억원으로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 더 적극적으로 모금 활동을 펼쳤습니다. 재정자립도 20% 미만인 140개 지자체 평균 모금액은 3억 3500만원이었고,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89곳은 3억 8000만원으로 확대돼 그렇지 않은 곳보다 2배 정도의 격차를 벌리며 모금했습니다. 첫해의 모금액에서 지역별, 시군별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강원도와 시군은 바짝 긴장해야 할 것입니다.

강원 시군별 모금액이 상위권 지자

체와 비교하면 최대 10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며 저조한 수치에 머물러 있기에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기부액이 적으면 기부사업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전남 나주시는 올해 고향기부금으로 '100원 빨래방' 마을공동사업을 진행기로 했습니다. 울산 동구는 청년노동자 공유주택 조성사업을 위해, 충남 청양군은 초중고교 탁구부 운영비 지원, 경남 김해시는 다문화가정 어린이 등으로 구성된 합창단 공연 운영비로 기부금을 모집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기부 상한액을 높이고 모금방법에 따른 여러 제한을 철폐하는 등 조속히 제도 개선을 통해 확실하게 안착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올해 시행 2년 차를 맞아 각 지자체는 더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입니다. '전남 사랑에서포터즈'를 가동하는 등 차별적인 정책으로 바람을 일으켜 1위를 거머쥔 전남도는 올해 목표액을 150억원으로 설정하고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부자가 보람을 가질 수 있고 주민이 체감하는 특색사업을 내놓아 관심을 끌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해는 지역 간 격차가 10배 정도에 불과하지만 방치한다면 100배 격차로 벌어질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 江原日報

2024 01 11 ( )

/ 19

## 반복되는 혈액 부족 사태, 헌혈 늘릴 제도 마련을

강원특별자치도 내 혈소판 보유량이 곤두박질치며 혈액 수급에 비상등이 켜졌다. 올해부터 대학 입시 전형에 개인 헌혈 실적이 반영되지 않고 겨울방학까지 겹치며 당분간 혈액 수급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자치도혈액원에 따르면 8일 0시 기준 도내 성분채혈혈소판 재고는 2.5일에 불과하다. 혈액형별 혈소판 재고는 각각 B형 1.3일, A형 1.7일, AB형 2.0일, O형 5.0일분에 그쳤다. 혈액 수급 위기 단계는 혈액 보유량이 적정 혈액 보유량(5일분)보다 적으면 '관심' 단계가 발령된다. 혈액 보유량이 3일분 미만일 경우에는 '주의', 2일분 미만은 '경계', 1일분 미만은 '심각'으로 격상된다. 현재 보유량이 부족한 혈소판의 경우 혈액을 응고시켜 출혈을 멎게 하는 역할을 수행, 백혈병 환자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이다. 하지만 냉장·냉동 보관을 하더라도 보관 유효 기한은 5일(120시간) 정도여서 꾸준한 수급이 필수다.

해마다 겨울철은 '헌혈 보릿고개'라고 불릴 만큼 혈액 공급에 비상이 걸리는 시기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10대 학생과 겨울철 헌혈 희망자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2024학년도 대입부터 개인 헌혈이 봉사활동에서 제외되며 헌혈 참가는 더욱 줄어들고 있

는 실정이다. 실제 9일 춘천시 효자동에 위치한 헌혈의 집 강원대센터에는 1시간 동안 단 한 명만이 헌혈을 했다. 헌혈의 날이 운영되고 있지만 혈액의 적정량을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공혈액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피가 부족해 생명이 위태로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헌혈을 통해 생명을 구하는 실천에 많은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수혈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자신이 헌혈한 혈액이 나와 가족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헌혈에 동참했으면 한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코로나19 등 여러 문제가 맞물리면서 혈액 공급 부족 문제가 고착화되고 있다. 게다가 급속한 노인 인구 증가로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전체 국민 중 헌혈 참여자는 10% 미만으로, 10~20대 학생과 군인이 헌혈자의 80%를 차지한다. 30대 이상과 여성은 헌혈 참여가 거의 없다. 반면 헌혈 인구는 주는데 수혈이 필요한 고령층은 급증하고 있다.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선 도민의 헌혈정신을 높이고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이 간절한 시점이다.

## 江原日報

2024 01 11 ( )

/ 19

## 일상 속 AI 시대 ... 강원도 경제 체질을 바꿔야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인 'CES 2024'에 150여개국 4,000여개의 기업이 참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서 현지시간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지고 있다. 참가 국내 기업 수가 지난해 469개에서 올해 772개로 사상 최대 기록이라고 한다. 주최국인 미국(1,148개)과 중국(1,104개)에 이어 세 번째 규모다. 특히 여기에 참여한 자치단체와 강원지역 기업들이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진태 지사를

단장으로 한 강원특별자치도의 'G-Frontier Project 추진단'은 이미 지난 8일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했다. 앞서 김현영 강원대 총

장, 최양희 한림대 총장과 허장현 (재)강원테크노파크 원장 등도 현지에 도착했다. 지사를 비롯한 대학 총장들까지 이번 전시회에 동참한 것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첨단 기술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함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추진단은 CES에 참가하는 강원자치도 내 바이오 분야 기업체와 함께 글로벌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바이오헬스 등의 기술을 홍보해 수출 확대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도에서는 박람회 주최 측의 선정 평가를 통과한 10개 기업이 'CES 2024'에 참가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 지

사와 대학 총장들 그리고 도내 기업들이 CES 2024에 큰 관심과 참여로 함께하고 있는 것은 분명 긍정적이다. 세계 경제와 첨단 기술의 흐름을 파악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것은 바람직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번 'CES 2024' 참가를 계기로 일상 속으로 파고드는 인공지능(AI) 시대에 강원특별자치도는 관광, 제조업 등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올해는 AI가 실생활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AI 쓰나미'가 밀어닥치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CES 2024의 주제 역시 '기술이 모든 곳에 스며든다'는 올온(ALL ON)이다. 과거 IT기기에 인터넷이 결합해 사물인터넷(IoT)

## 세계 최대 IT가전전시회(CES) 미국서 열려

## 도내 10개 기업 참가, 네트워크 구축 나서

## 첨단 기술 흐름 파악, 새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이라고 불렀던 것에서 한 단계 발전해 이젠 AI가 만물에 들어간 사물 AI(AIoT)의 시대가 왔다는 의미다.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가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챗GPT'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지 벌써 1년이 넘었다. 공개 당시만 해도 이전에 없던 신기한 서비스 정도로 간주했던 챗GPT는 전 세계인의 일상은 물론 IT·금융·물류 등 산업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기존의 질서를 허물고 재편하는 파괴적 혁신의 표상이 됐다. 장문의 글과 이미지, 영상까지 만들어 내는 챗GPT는 출판·미술·음악 등 인간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창작의 영역까지 넘보고 있다. 이젠 AI 시대에 어떻게 부응하는냐가 경쟁력이다.